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복음과 상담」 제28권 2호(2020): 77-108

http://dx.doi.org/10.17841/jocag.2020.28.2.77

야곱 내러티브의 기독교상담적 읽기: Fairbairn을 중심으로

김 미 경*

국문초록

현재 우리는 코로나 19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가는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다. 비대면수업,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을 결정하여 언택트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크리스챤의 신앙생활에도 파급되어 예배도 비대면 형식으로 드리게 되어 자칫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로 파급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실존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야곱 이야기를 배경으로 '벧엘' (하나님의 집)로 집중하게 만드는 창세기의 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야곱의 이야기를 6개의 장면구조로 나누어 야곱과 주변 인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Fairbairn의 대상관계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얍복강 사건과 디나 사건 이후 야곱이 그의 가정에서 시행한 창세기 35장의 종교개혁, 벧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가셨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상담은 야곱 이야기의 중심 모티브인 '벧엘' 에서 출발하여 '벧엘' 로 돌아오도록 내담자를 안내해야 한다. '벧엘' 로 귀환했을 때 비로소 내담자의 파편화된 자아는 그리스도라는 이상적인 대상과 조우하여 중심자아가 강화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내담자의 안녕감이 주어지게 된다.

주제어: 벧엘, 관계적인 존재,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기독교상담. 페어베언의 대상관계이론

• 논문 투고일: 2020년 9월 29일 • 논문 수정일: 2020년 10월 31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1월 6일
* 서울한영대학교 재활상담심리학과 부교수

www.kci.go.kr

I. 여는 글

현재 우리는 코로나 19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 관계와 연결에 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안전한 컨택트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생활방식, 도시 기능 재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주어지고 있다. 학교와 기업도 비대면수업,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결정하여 언택트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크리스챤의 신앙생활에도 파급되어 예배도 비대면 형식으로 드리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어 자칫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로 파급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로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형성은 실존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관계적인 인간이 고립되고 정서적 교감이 차단되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벧엘' (하나님의 집)로 집중하게 만드는 창세기의 서술에서 주인공인 야곱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한다. 야곱의 이야기를 6개의 장면구조(집-벧엘-라반의 집-얍복강-세겜-벧엘)로 나누어 이를 대상관계이론 관점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성경의 역사적 인물 가운데 야곱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대상관계경험이 항상적(object constancy)이지 못하고 자의적인 마음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들었다 놓았다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곱의 비통한 슬픔과 뼈아픈 상실의 삶의 연대기를 추적해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고자 함이다. 그동안 야곱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져 왔으나 현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숙고하는 차원에서 '거리두기' 라는 불가피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그 대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과의 대상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

www.kci.go.kr

는지를 과정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대상관계이론은 개인이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는 내적 심리구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또한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조명해 줄 수 있는 함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순수한 대상관계이론의 지평을 연 Fairbairn의 관점을 통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기독교 상담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단, 본 연구는 성경 인물들의 내적 심리상태와 주변 인물들과의 역동은 객관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야곱 내면에 대한 탐색을 위해 대상관계이론의 적용은 사실 여부보다는 다소 상상력이 가미되어 야곱의 역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성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성숙한 대상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II. 펴는 글

1. Ronald Fairbairn(1889-1964)의 대상관계이론

대상관계이론은 발달궤도에서 대상과의 적절한 관계 경험을 강조하며, 특히 초기 관계의 질은 한 개인의 삶 전체에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본다. 즉 발달노선에서 부적절한 대상 경험은 병리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Siegel, 2002). 대상관계 이론에 속하는 각 이론들은 다른 관점을 지니고 출발했지만 인간이 정신적 고통을 덜기 위해 대상을 분열시킨다는 Fairbairn의 견해에 동의하며(Scharff & Scharff, 1998), 내재화된 대상관계는 인격발달과 관계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관점(Greenberg & Mitchell, 1983; Scharff, 1996) 을 유지하며 발전해 오고

www.kci.go.kr

있다.

Fairbairn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처음에 윤리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의사로서의 수련을 받았다. Fairbairn은 의과대학을 다닐 때 프로이트에 관한 책을 읽었으며, 분석을 받았다. 그는 평생을 에든버러에서 살았는데, 이것이 정신분석과 정신분석적 논쟁의 중심지였던 런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의 정신분석영역을 정립할 수 있게 된다(Johnson, 2019).

Melanie Klein은 '대상'을 내적인 것으로, 우리 내부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외적인 경험과는 단절된 것이었으나, Fairbairn에게 있어서 대상은 영아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 환경에 실제로 존재하는 분리된 사람이었다. 이는 그동안 정신분석의 역사가 전적으로 환상의 내적인 삶에 관심을 두는 것에서 실제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것으로 초점을 전환시킨 극적인 변화이다(Gomez, 1997). 아기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좋음과 나쁨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전부 아이가 실제적인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Fairbairn에 따르면, 원래 자아는 총체적이고 손상이 없는 자아(고유자아)로 본래 다른 사람과 완전하고 문제가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Fairbairn은 Freud와 달리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자아가 존재한다고 보았는데, 그의 자아에 대한 의미는 심리 내적인 대상과 역동적으로 관계하는 응집적인 실재이다(Robbins, 1992). Fairbairn에 의하면 최초의 자기는 '단일한 역동적인 자아(unitary dynamic ego)'이다. 하지만 타자와 접촉하고자 하는 일차적 목적은 번번이 좌절될 수밖에 없으므로 부차적 자아들이 파생된다. 즉 리비도적 자아나 반리비도적 자아들이 나쁜 내적 대상들에게 집중된다(Greenberg & Mitchell, 1983). Fairbairn은 병리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리비도적

www.kci.go.kr

자아를 억압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아의 분열은 인간 성격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있다(Robbins, 1992). 이는 마치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문제가 없는 관계인 고유한 자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창조의 의도로부터 추락한 인간은 불가피하게 자아가 분열되는 양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Fairbairn은 이처럼 관계의 양상이 좋지 않게 되어 고통스럽고 나쁜 대상으로 경험된다면 유아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대상을 내재화한다고 보았다. 즉 현실의 타자와의 관계가 좌절될 때, 자아는 분열되고 그 좌절은 보상해주는 내적 대상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나쁜 대상은 거절하는 측면(rejecting object)과 유혹하고 기대하게 하는(exciting object) 측면으로 나뉘는데 이 두 측면은 내재화되면서 이와 연결된 자아의 경험에도 긴밀히 영향을 주어 자아의 분열을 초래한다. 즉 거절하는 내적 대상의 표상은 거절 받는 자아(antilibidinal ego)의 경험과 짝을 이룬다. 그리고 기대하고 흥분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실망시키는 대상의 내면화는 영원히 희망과 갈망을 반복하며 허망해하는 자아(libidinal ego)의 한 부분과 다시 짝을 이루어 존재한다. 이 리비도적 자아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 달라고 어머니에게 아우성을 치지만 자아의 또 다른 부분은 희망을 잃고 포기하며 무감동한 퇴행한 자아(regressed ego)가 되는데, Guntrip은 이를 가장 나쁜 비인격화된 분열성 경험이 발생하는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이 퇴행한 자아는 철수하여 무감동한 상태에 빠짐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와 관계하지 못함으로써 성장을 향한 잠재력이 일깨워지지 않는다. 즉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관계도 없이 일깨워지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다(Guntrip, 2020).

그러므로 Fairbairn에게 있어서 심리치료는 분열된 자아의 재통합이며 잃어버린 전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는 '리비도화된 자아의 목표는 대상' 이고, 리비도는 인간의 정신적 자기가 가진 기본적인 대상

www.kci.go.kr

추구적 삶의 충동을 표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용어로 본다(Guntrip, 2020). 좋은 대상경험은 좋은 자아발달을 이끈다. 충분히 좋은 엄마와의 경험을 했고 적절하게 안정적이면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완벽한 엄마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아는 곧 불만족스러운 양육 경험에 직면하며,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나쁜 대상 어머니는 최초로 내면화되는데, 그것은 유아가 엄마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Fairbairn은 자아발달을 위한 결정요인이며 가장 중요한 필요요건으로서 대상관계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하지만 Fairbairn은 자아의 기원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겨두고 있다. 그는 대상관계이론가 가운데 가장 조명을 받지 못했지만 총체적인 대상관계 성격이론을 정립하였으므로 순수한 대상관계이론을 전개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Gomez, 1997). Fairbairn은 그 당시 클라인이 Freud의 욕동이론을 고수한 채 이론을 발전시킬 때, 그는 Freud의 성적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거부하며 '관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강조하였다(Greenberg & Mitchell, 1983). 또한 Fairbairn은 온전한 자아가 출생 시부터 존재하며 '전체적인 심리적 자기' 로서 대상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자아는 점차 형성되어 간다고 보았다.

2. 야곱 내러티브를 기독교 상담적으로 읽기

본고에서 필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6개의 장면구조(아비의 집–벧엘–라반의 집–얍복강–세겜–벧엘)로 나누어 이를 대상관계이론 관점으로 분석해볼 것이다. 단, 야곱 생애의 대상관계와 그가 체험한 벧엘 사건은 하나님이 실제 역사에서 임재하신 것으로 단순한 내적 경험이거나 정서적 차원의 위로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

www.kci.go.kr

1) 집: 아비의 집

야곱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다음에 전개되는데 창 25장에서 시작하여 49장 야곱의 유언으로 마무리된다. 지면으로 보면 창세기 절반을 차지하는 야곱의 이야기는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창 25:22). 이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던 두 아이의 갈등은 태내기부터 이란성 형과의 대립과 갈등의 구도를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에서와의 갈등은 태중에서부터 시작하여(창 25:22) 먼 훗날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귀향할 때에서의 너그러움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창 25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대해 언급하면서 야곱이 생을 살아가는 지도를 암시하고 있다. 이름은 인물의 성격을 암시하고 있다. 성경에서도 이름이나 지명 등에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고 특히 구약에서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시적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다. 야곱의 이름은 '뒤에 있다', '뒤에 오다,'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창 25:26). 즉 야곱은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뒤를 쫓는 자' 라는 의미이다.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의 독특한 출생 장면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출생과 연관된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삶의 양태도 반영한다. 하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은 출생과 연관된 이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교활하고 집요하며 경쟁심이 강한 성격과 기질을 반영해 주는 이름이다. 야곱은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외모에 대한 표현에서도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창 27:11에서 야곱은 자신을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매끈매끈함은 '미끄럽게 하다', 아첨하다 '라는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야곱의 인물됨을 구체화하고 있다. 묘하게도 '매끈함' 은 피부의 부드러움을 뜻함과 동시에, '사기꾼', '아첨꾼' (잠 5:3 참조)을 의미한다.

www.kci.go.kr

야곱의 이름에 대한 해석은 에서의 울부짖음에서도 규명된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창 27:36). 이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은 빼앗고 갈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욕망의 인물로 결핍된 욕구를 반영한다. 한편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 두려움과 겁이 많았던 인물로 추정된다. ‘두려워하다’ 라는 표현이 다른 족장들보다 야곱에게서 6회(창 28:17(2회), 31:31, 32:7, 11, 46:3)로 가장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름의 배경을 지닌 야곱은 항상 리브가 엄마의 뒤에서 아버지의 눈치를 본다. 여러모로 형에 비해서 밀리는 자신의 상황을 어머니에게는 측은지심을 유발시키지만 아버지에게는 늘 저울질의 축에서 밀려 있다. 성장기 남아에게 있어 부성의 경험은 중요하다. 결핍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늘 허기가 져 있는 야곱이었는데 이런 편애구도를 자신의 아들들과의 관계에서 재현하고 있음은 아이러니 하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가정은 자녀들의 관계가 갈등과 편애 구도를 형성한다. 편애는 야곱의 가계도에서 긴 족보를 갖고 있으며, 거의 배다른 형제로 인해 상처를 받는데 이삭은 사랑하는 리브가를 통해 이란성 쌍생아를 얻지만 이들 역시 갈등의 관계는 심화된다. 그 배경은 이삭의 원인제공을 배제할 수 없다. 이삭은 사내답고 늠름한 에서를 총애하지만 야곱과는 거리를 둔다. 이삭도 이복형인 이스마엘과 갈등과 편애 구도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육 환경을 고스란히 되물려 주고 있다. 야곱의 섭섭함은 이삭의 무관심과 심리적 거리감이 동인이 될 수 있다. 이삭과 리브가의 성향은 상반되어 보이며 이들은 부부관계에서 오는 공허감을 각각 에서와 야곱으로 채우려 했던 것 같다(창 25:28). 야곱 역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창29:30)하며 아내에 대한 마음의 거리는 그들의 소생에게도 되물림 된다. 야곱은 라헬의 그림자인 요셉에게로 옮겨가

www.kci.go.kr

고 이로 인해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는 환경으로 몰아간다. 야곱과 레아의 아들들의 심리적 거리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여 애지중지하던 요셉과 몸의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야곱의 삶은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과 속고 속이는 삶의 연속이었다. 야곱의 출생기원을 살펴보면, 조모인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고(창 11:30)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도 어렵게 두 아들만 해산한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창 25;21). 리브가의 불임기간은 20년이나 지속되어 이삭이 육십이 되었을 때에 리브가는 비로소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된다. 비록 25년 이상을 기다렸던 아브라함보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을 동시에 얻게 되었으나 이삭과 이스마엘 갈등 못지않게 야곱과 에서 사이의 갈등은 한층 더 심각했다. 형제의 갈등은 아내들의 갈등에서도 재현된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수태를 못하여 언니인 레아를 시기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고자 한다. 빌하는 라헬의 일시적 필요에 의해 야곱의 여인이 된 대리모라고 볼 수 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관심과 칭찬의 부스러기도 받지 못하면서 성장기를 보낸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들은 아버지를 내면화하면서 초자아가 형성되고 성역할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발달적 결핍으로 인해 야곱의 초자아인 양심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된 것 같다. 역으로 에서는 아버지의 부성적 몰두로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되어 먼 훗날 야곱과 다툼없이 화해를 하게 된다. 마치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빼앗고 점령하는 이방 민족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대안의 우물을 판 것처럼 에서도 아버지의 이런 면모를 닮은 것 같다. 야곱은 성장하면서 더더욱 아버지와 이질감과 거리감이 생기고 아버지로부터 차별적인 돌봄을 받게 된다. 야곱은 늘 생각 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나쁘기 보다는 “내가 형처럼 사내답지

www.kci.go.kr

못해서, 아버지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좀 더 강인해지면 된다"는 희망을 계속 유지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야곱이 추구하는 대상인 아버지가 반응을 해주지 않을 때,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느꼈을 것이고, 이때 야곱의 내면에는 아버지가 거절하는 대상으로 내재화 된다. 아이는 불만족스러운 현실 대상을 두 유형으로 분열하고 억압하게 된다. 즉 흥분시키는(유혹하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이다. 실제로는 이 대상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지니지만, 대상을 상실하거나 대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오히려 철수하게 된다. 이처럼 대상 접촉에 대한 정서적 투자가 철수될 때, 자아는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게 되어 자신의 존재감마저도 상실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야곱의 불리한 촉진적 환경은 가정의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독자들은 이미 야곱이 상속자임을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 이삭의 행동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창 25:23) 망각한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허기진 야곱의 불행한 상황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기질을 더욱 자극할 만한다. 이처럼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려 있었으며 형이 부럽고 형이 지닌 장자권에 대한 선망도 날이 갈수록 커져 갔을 것이다. 부모의 반쪽 사랑만 받고 자란 야곱은 충분한 돌봄이 결여되어 자아 형성에 상처를 입게 되어 허기진 욕구를 채우려는 왜곡된 자아가 형성된다.

야곱은 배다른 형도 아닌 이란성 쌍생아 에서만을 유독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현실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마와 융합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 야곱은 오로지 엄마의 돌봄과 관심 어린 표정을 통해 성장하였으므로 독립된 자아이기 보다는 엄마와 하나 된 융합된 상태가 지속된다. 야곱은 에서에 비해 부성애의 박탈과 좌절이 있었을 것이며 오랫

www.kci.go.kr

동안 정서적으로 부재한 아버지의 냉담과 헌신적이지 못함은 더욱 아버지를 갈망하게 되어 야곱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좌절이 야곱에게는 '나쁜 것' 혹은 '박탈적인 것'으로 경험되어 야곱의 심리 내적 세계는 자연스럽지 못하고 자칫 병리적인 정신 과정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Fairbairn에 따르면, 아이에게 이처럼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대상과의 현실 세계는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유아의 갈망' 때문에 내재화된다. 부모가 아무리 유아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결코 부모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Fairbairn, 2003). 야곱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경험을 확장함에 있어서 이를 차단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에 대한 시기심은 점점 커지게 된다. 소외당하고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 위치를 되찾기 위한 갖은 궁리를 하게 된다. 이처럼 야곱은 현실 세계에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자원이 제한적이었다. 아버지 앞에 나란히 두 형제가 서 있어도 아버지의 시선과 관심은 에서에게만 집중되었을 것이다. 평범한 일개의 가장이 아닌 족장의 총애를 누리는 형이 어린 야곱에게는 얼마나 부러운 대상이었겠는가.

한편 야곱은 유약해 보이는 아버지가 백부인 이스마엘을 제치고 지켜온 가문의 수장자리를 누구보다도 잘 계승하여 다음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이다. 형보다는 자신이 적격이라고 혼잣말을 되내이면서 결국은 자신이 형보다 아버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긍정적인 착각도 하였을 것이다.

대상관계이론은 생애초기에 대상과의 관계 경험들이 내면의 흔적으로 남아 이후에도 유사한 관계패턴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관계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정하고 형의 것을 넘봐서는 안 될 위치임을 강조하는 경직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

www.kci.go.kr

지 이삭은 갈망하는 대상이다. 자신도 에서와 다를 바 없는 적통이므로 이 애증의 대상인 아버지를 좌절시키고 싶은 욕구가 성장하면서 커지게 된다. 이제 나이 든 아버지를 보란 듯이 좌절시킬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을 감행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 야곱과 리브가의 공모의 언어로 숨가쁘게 계획된 거짓말은 또 다른 아들의 희생을 초래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창세기 기자는 피해자 에서가 받은 충격과 상흔을 심도 있게 다루지를 않고 있다.

야곱은 엄마의 서두름과 어긋난 모성애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스스로 체계를 잡거나 통제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 아마도 엄마는 형의 장자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아들의 심층 내면의 그림자(shadow)를 잘 간파하였을 것이다. 그동안 아버지 이삭의 관심과 장자권 밖으로 밀려나 있던 야곱의 심리적 억압으로 인한 욕망의 그림자는 드디어 놓쳐서는 안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 순간 어쩌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 역시 장자 이스마엘 형을 제쳐 놓고 장자권을 취득하였기에 야곱은 자신의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합리화하여 리브가의 제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동안 야곱은 장자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의 분명한 삶의 경계선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장자권은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충분히 간파하였을 것이다. 그동안 야곱은 유독 장자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 왔다. 설령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의 팥죽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해서 과연 장자의 순서가 바뀔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거래는 불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 야곱은 이미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출생하기도 전에 정해져 있는 장자의 신분이다. 에서와 간만의 차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번복될리는 없을 텐데 야곱의 행위는 마치 잃어버린 장자의 권한을 다시 찾고자 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보이고 있다. 이때까지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는 그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인식되는 부분-대상경험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형의 장자

www.kci.go.kr

권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야곱은 창 27장 20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반응하면서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까지도 도구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인간적인 술수와 잔꾀로 아버지 이삭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는 주권적인 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굳이 동원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만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만약 이삭이 계획한대로 에서에게 축복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바로 잡아 놓지 않으셨을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형으로 분장을 했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확인을 하고자 그의 몸을 만진다. 그때 야곱의 심정은 양가감정이었을 것이다. 발각되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이렇게 평상시에 애정 어린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묘한 감정들이 야곱의 심장을 후벼팠을 것이다.

드디어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퇴장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다. 에서의 능숙한 사냥 솜씨를 짐작케 하는 동시에 이삭의 축복이 조금만 지체되었어도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어 무사히 모자의 빠른 몸놀림이 성사되었다.

한편 야곱은 생애발달과제에서 중요한 결혼을 에서와는 달리 모범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다 준 형과는 달리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훗날 그의 의에 보상하신다. 하나님은 족장의 도덕성을 중히 여기신다.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와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관계를 맺는

www.kci.go.kr

장면과 이어서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잘 견뎠으나 무고하게 고발당하여 감옥에 보내진다. 하지만 요셉은 순결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극적으로 보상하신다(창 39:23). 야곱도 혈기왕성한 시기에 형처럼 아리따운 이방여인들을 아내로 맞고 싶은 유혹도 있었겠지만 이런 욕망을 잘 떨쳐버려 족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본다면 야곱이 언약 백성다운 결혼을 위해서라도 원가족을 떠나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

2) 벧엘: 하나님의 집

야곱은 형의 것을 탐하는 욕망에 굴복한 결과, 아비 집을 떠나게 되었고 고난의 길로 접어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벧엘은 과거의 익숙한 환경과 알 수 없는 미래 사이의 불안한 현재로 야곱은 이곳에서 노숙하게 된다. 광야 길에 혼자서 첫 밤을 맞이했을 때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을 것이다. 사나운 짐승의 소리, 혹시 형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등의 무서운 생각이 파고들고 어머니가 그리웠을 것이다. 이제 익숙한 환경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현실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가족 특히 어머니와의 단절과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적으로 위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신다(창 28:13).

음산한 광야의 저녁은 이제 하나님과의 사적이고 은밀한 교류의 영역이 된다. 야곱이 갇혀 있는 외부세계의 불운은 오히려 하나님과 애착 경험을 갖게 되는 신성한 영역이 되어 자기존재의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를 나무라지 않으신다. 두려움과 피로감에 젖은 야곱에게 보듬어주시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으로 다가오셨다. 여기서 Rizzuto의 가설을 적용하여 살펴보면, 사람들은 유아기에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www.kci.go.kr

다고 한다. Rizzuto는 Winnicott의 이론을 발전시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린 시절에 부모들과 함께 한 관계 표상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다(Rizzuto, 2000).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야곱의 불안을 덜어주고 방패막이의 역할을 해주었다. 야곱이 멈칫하고 있을 때 저주는 자신에게 돌리라고 할 정도로 야곱의 두려움을 담당하고 전폭적으로 방어해준다(창 27:13). 광야에서 찾아오신 하나님도 리브가의 이미지로 다가오신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야곱은 사랑하던 어머니와 느끼던 합일의 느낌 혹은 조화의 느낌을 재확립하였을 것이다. Rizzuto의 언급처럼 현재의 하나님 표상은 과거의 대상표상의 재연인 셈이다. 대상관계론적인 Rizzuto의 설명이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필자는 여기서 야곱이 지닌 과거의 대상표상에 코드를 맞추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라고 보고 싶다. 낯선 광야의 어둠에서 야곱에게 필요한 환경은 지지적인 돌보아주는 대상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야곱에게는 위안을 안겨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현실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심으로써 야곱은 심리적 균형을 얻게 된다. 야곱은 부모상을 떠남으로써 한정된 세계가 아닌 라반의 계략에 휘둘리는 삶의 회오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전혀 알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그전에 야곱을 만나주셨고 약속으로 보증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해 주시며 지켜 주리라는(창 28:15) 언약자손으로서의 확증을 해 주신다. 비로소 야곱은 그동안 결핍되었던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충분히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야곱의 첫 번째 하나님 대면은 에서의 분노로부터 피신하기 위하여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 벧엘에서 행해진다. 창 28장 벧엘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직접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진다(창 28:13). 야곱의 인생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현현하셔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www.kci.go.kr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장차 야곱도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한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신다(창 28:15). 하나님은 야곱의 행위를 책망하며 다시 돌아가 아버지와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장자권을 반환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안전하게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처럼 야곱은 극도의 불안감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위안을 얻게 되고 좋은 하나님을 자신의 연장(extension of the self)으로 경험하면서 분리됨의 고통을 덜게 되어 중심 자아(central ego)가 확대된다(Fairbairn, 1995).

그동안 야곱의 자아분열은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에게 양도되었으나 이 영역이 회복되어 원래 자아의 분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럼으로써 중심자아로 최대한 통합되어 흥분시키는 대상과 거절하는 대상을 중심자아의 영향 아래 두게 된다(Fairbairn, 2003). 이처럼 우리의 중심자아는 오로지 그리스도라는 이상적인 대상과 관계함으로써 분열된 자기가 통합되어 갈 수 있다.

야곱은 불안에 떨던 그 마음들이 진정이 되고 긴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이후 라반이라는 좋지 않은 대상과의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탱하고 현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중심자아가든든해진다. 야곱의 벧엘에서의 하나님 임재 경험은 그동안 결핍되었던 정서적 조율이 충족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 어쩌면 야곱은 거절하는 대상으로 내사된 아버지의 표상을 하나님에게 투사하여 하나님 역시 두려움의 대상으로 경험할 수도 있다. 또한 유혹하는 대상이기도 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도 아버지처럼 늘 만족시킬 수 없는 유혹하는 대상이나 거절하는 대상으로만 표상하였을 것이다. 그런 줄 알았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벅차고 감사했으면 야곱이 그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십일조를 드리겠다는 서약을 했을까 싶다. 야곱의 삶의 양식은 얻고 빼앗으려고만 했지 주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하

www.kci.go.kr

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야곱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 형성의 장이 된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대상임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며, 이때 벧엘의 돌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을 뜻하는 전이대상(transitional object)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라반의 집

야곱은 혈육이긴 하나 생면부지인 외삼촌의 집에 얹혀 살게 된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집으로 도주한 경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야곱에게 같은 구도의 상처를 안겨다 준다. 속이는 자로서의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미지의 삶이 그를 다시 속는 자로 뒤바꾸어준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감정을 이용하여 라반은 본격적으로 야곱을 속이기 시작한다.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도다 (창 29:14)라는 거짓 친밀함(pseudo intimacy)에 가리워져 있는 라반의 고단수 속임이 야곱의 삶에 짙게 드리워지게 된다.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뒤, 라반은 드디어 혈육의 관계를 주종의 관계로 전락시키며(창 29:15) 원가족을 떠나 혈혈단신이 된 야곱이 라헬에게 푹 빠져 있는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철저히 속이는 용의주도함을 보인다.

라반의 계산은 예측대로 진행되었으며 그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레아까지 야곱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거두게 된다.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가 뜻하지 않게 조광지처가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비로소 속임의 허망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야곱은 한눈에 반해 버린 라헬과 혼인하기 위하여 7년의 노동을 감수하였는데 어처구니 없이 라반에게 속아 또 다시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7년간 봉사를 더 하게 된다(창 29:20-30). 또 6년은 라반의 가축을 얻으려고 보냄으로써 20년의 시간이 훌쩍 흘러가 버린다. 야곱은 두 자매를 배우자로 얻게 되어 이들이 갈등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에서와 자신과의 관계를 늘 영상으로 보는 듯했을 것이다. 남

www.kci.go.kr

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가정에서 그들의 지위를 담보해 줄 자녀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에게 몹쓸 짓을 한 자신을 보았을 것이다. 야곱의 가정은 다수의 아내로 상속분쟁과 가정불화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을 것이다.

하란에서 야곱이 보낸 시간들은 어찌 보면 대상을 비우는(emptying of the object) 과정이었다. 안전기지(secure base)였던 어머니의 비보를 접했을 때 야곱은 망연자실했을 것이다. 아버지와 형을 마주하기가 더 어렵게 됨을 직감하는데, Summers(2004)는 이런 경우 남은 본루인 아버지라는 대상을 보존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대상 접촉을 피하게 된다고 보았다. 하란에서 힘든 시기에 대상상실은 압도당하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고 통합하기 위해 다른 대상이 필요하다. 필자의 짐작으로는 이 대체대상이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야곱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담아주는 내적인 안전기지였을 것이라고 본다.

표면적으로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즉,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특히 에서의 원한을 산 행동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축복을 계승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창세기 기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장자 에서로 인해 시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이 상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아버지인 이삭도 이방 여인 며느리가 탐탁치 않았을 것이므로 가정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았을 것이다. 이 상황을 포착하여 차남인 야곱을 통해 약속의 민족으로서 가문의 혈통과 순수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삭 부부가 모처럼 의견을 같이 하게 된다.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형의 것을 가로챈 댓가로 타향살이를 통해 혹독하게 치르게 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당신의 약속과 계획에 따른 퍼즐을 한 조각씩 맞추어 나가고 계심을 창세기 기자는 세밀하게 전하고 있다.

www.kci.go.kr

한편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이 원가정을 떠난 후 이삭의 가정은 어떤 분위기였을까. 에서의 반항과 적대감은 고조되어 리브가는 사안이 진정되면 야곱을 부르겠다는 약속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게 된다. 아마도 리브가가 생을 일찍 마감한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계속 누적되면서 신체화 장애를 겪었을 것이다. 하란으로부터 어렴풋이 접하는 야곱의 소식은 삶이 평탄치 않았음을 감지하였을 것이고 남은 아들 에서와는 정서적으로 단절되었을 것이다.

4) 얍복강 –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여정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통제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을 때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섬뜩한 일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게 된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얍복강을 건너게 한 후 자신은 얍복강의 다른 맞은 편, 약속의 땅 밖에 홀로 남게 된다(창 32:22–24; 신 3:16). 칠흑 같은 한밤중에 야곱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날이 밝기까지 그와 씨름하였다(Jordan, 2009). 이 싸움은 노령의 야곱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날이 밝기 시작했을 때,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자신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 뼈를 쳐서 야곱의 환도 뼈가 위골되어 버린다(창 32:25). 비로소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싸움의 결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창 32:28),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묘사된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과 부족 역시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된다.

이 씨름이 있기 바로 전에 야곱은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에서와의 만남을 목전에 두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 야곱의 기도에서 핵심적인 정서는 '두려움' 이다(창 32:9–12). 20년 전 에서로

www.kci.go.kr

변장하여 아버지를 속였을 때도, 삼촌 집에서 모진 세월을 보냈을 때도 '두렵다'는 표현을 하지 않던 야곱이 '두려움'을 토로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 이 장면은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야곱의 교활하고 속임수로 점철된 나쁜 자기표상과 성숙을 향한 또 다른 자아인 선한 자기상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 씨름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숙을 향한 도상에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그동안 야곱의 삶은 자기 몰입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기능을 내재화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형과의 관계를 본다면, 갈등과 적대감, 미움이 아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는 좋은 경험의 하나님의 속성을 내재화하게 된 것이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을 자기체계로 통합하여 자기애의 성숙한 변형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인정을 받음으로 이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좋은 경험이 중심자아와 이상적 대상의 관계성에 부여된다.

한편으로 20년 전,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분히 상기하지 않고 엄마인 리브가의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즉 위기(crisis)를 경험하지 않고 쉽사리 의사결정(committment)을 한 전형적인 정체감 유실(identity foreclosure) 상태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장의 명예 전당에 계승자가 자신임을 인식하였다면 반드시 독립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어야 할 것이다. 야곱은 통합된 정체감 발달을 위한 위기 경험을 보류한 결과, 이제 얍복강에서 하나님 사자와 대면하여 고통스러운 위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또한 야곱은 어머니와의 재회는 시기를 놓쳤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시기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간직하며 큰 장애물인 형과의 화해를 하기 위

www.kci.go.kr

해 얍복강에서 혼신을 다하여 의지를 쏟는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던 기억들을 분리시켜 억압한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래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기에 아직은 희망이 있음을 저버리지 못한다. Fairbairn의 설명처럼 야곱이 아버지를 향한 리비도적 자아는 일회적인 아주 작은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경험을 환상 속에서 확대하며 이를 간직한 채 살아갔을 것이다.

얍복 강가에서의 씨름은 그동안 현실적인 욕망만을 좇아 간 자아가 이제는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욕망과 양심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한 판의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야곱의 씨름은 '이스라엘' 이라는 새 이름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국면을 맞게 된다. 히브리인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닌 이름을 가진 사람의 됨됨이, 기질이나 소원 혹은 예언적 의미까지도 지닌다(호 1:4).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이름을 개명하여 주신 것은 과거 삶의 행적을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미래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란 의미를 부여해 줌으로써 지금까지의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로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종지부를 찍는 것이며 앞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계신 것이다. 이후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도받는 삶으로 야곱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동일하게 부여되는 특권인 것이다.

드디어 20년 만에 형 에서와 만났을 때 야곱은 자신을 거듭 7번씩이나 낮추면서 성숙한 자아의 모습을 보인다. 형과의 화해는 야곱이 자신의 욕구 성취보다는 만족스러운 관계성이 성장을 이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실력자가 되어 야곱에게 왔을 정도라면 장자의 축복에서 비껴나긴 했지만 에서도 부족과 재산을 일구었

www.kci.go.kr

고 야곱을 맞이한 태도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너그러움을 엿볼 수 있다. 자신의 경솔함으로 장자권을 잃은 에서와 이를 악용하여 남의 것을 가로챈 야곱 역시 20년의 세월을 거쳐 성숙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야곱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인간의 욕망은 또 꿈틀거리게 된다. 20년 전 하나님과 약속한 벧엘로 직행을 했으면 외동딸 디나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5) 세겜 : 야곱의 집

야곱은 벧엘로 올라가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한 세겜 땅에 머물면서 외동딸 디나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겨다 주게 된다. 세겜은 야곱의 귀환 목적지가 아니며, 세겜에서의 안주하려는 야곱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잊고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벌어진 사건인데, 창세기 어디를 보아도 디나를 측은히 여기고 위로해 주었다는 아버지로서의 반응을 찾아볼 수 없다. 딸 디나와도 심리적 거리두기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야곱은 무기력할 정도로 아니 의붓 아버지일정도로 침묵하며 아버지로써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딸 디나 입장에서는 야곱의 반응은 애착외상으로 경험될만하다. 디나에게서 안력이 부족한 레아의 모습을 보았을까 다양한 상상을 자아내며 무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된다. 디나에게는 가해자인 세겜 추장의 아들보다 방관자인 아버지의 태도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를 읽은 디나의 오빠들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친히 행동대장으로 나선다. 디나 사건의 전모를 들었음에도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라는 야곱의 침묵 반응은 부성애가 실종된 그야말로 비굴하고 민망한 모습이다. 아버지로서의 야곱은 딸의 안위와 장래를 걱정하기 보다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모여

www.kci.go.kr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창 34:30)라는 자신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이 사건을 통해 레아의 자녀들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야속함과 원망이 한층 더 고조되었을 것이다. 벧엘이 아닌 세겜에서 안주하려는 야곱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됨으로써 디나 뿐만 아니라 그 오라비인 시므온과 레위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된다.

세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정체성이 새롭게 되어도 이스라엘의 '이름 부음'은 끊임없이 되새겨지고 반복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옛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형 에서의 칼날로부터 도피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인 벧엘로 올라가 제단을 만들라고 명하신다(하경택, 2018). 드디어 야곱은 벧엘로 올라가기 전에 취해야 할 행동들을 가솔들에게 명령한다. 라헬이 아버지 몰래 훔친 가신 드라빔을 비롯하여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촉구한다. 의복 교체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제의적 정결의 의미가 있다. 이는 세겜의 사건으로 더럽혀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이다(하경택, 2018).

6) 벧엘 : 하나님의 집으로 귀환

하나님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벧엘로 돌아왔을 때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신다(창 35:9-13). 여기서 '다시'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주할 때 야곱에게 나타나신 창세기 28장 20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다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신 반복과 연속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20년 전과 지금도 동일한 이상적 대상(ideal object)으

www.kci.go.kr

로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고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다. 이름의 개명은 전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과거의 '뒤통수를 치는 자'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하경택, 2018). 하나님은 친히 야곱을 향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창 35:10) 전인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선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20년 전과 동일한 대상항상성으로 야곱에게 각인된 것처럼 야곱도 다시는 야곱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벧엘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곳으로 미지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키신 곳이며,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다. 야곱은 벧엘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즉 벧엘은 야곱의 새 인생의 출발지이며 동시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된다. 오랜 숙제였던 형 에서와의 갈등도 모두 해결이 되었는데 그는 벧엘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근처 숙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집을 건축하고 짐승을 위해 우릿간을 지은 것은(창 33:17), 벧엘로 귀환하는 계획을 바꾸어 세겜에서 안주하려는 야곱의 결심으로 이해하게 된다.

야곱 내러티브에 있어서 '벧엘' 은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 나의 하나님 '을 만나게 된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목적지가 되어야 하는 언약의 장소이다. 야곱의 하란 여정은 사실상 ' 벧엘 '에서 출발하여(창 28:20–29:1) ' 벧엘 '로 돌아오는 것(35:1–15)이다. 이 과정에서 드보라 죽음의 보도가 삽입되는데, 본문의 맥락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당혹스러움을 안겨다 준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로 이에 대한 언급은 단 한번만 있었을 뿐(창 24:59),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야곱에게는 어떤 대상이었는지 전혀 기록이 없다. 이러한 드보라의 죽음은 세겜에서 헤브론에 이르는 야곱의 귀환 여정을 보도하는 분문 가운데 삽입되어 있다. 드

www.kci.go.kr

보라가 묻힌 알론바굿은 벧엘의 또 다른 이름이다. 즉 벧엘은 야곱이 제단을 쌓았고, 돌기둥을 세웠던 곳이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힌 곳이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아마 야곱의 출생을 돕는 산파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 어머니 리브가와 연결되는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이었을 것이다. 즉 야곱에게 유모인 드보라는 상실된 어머니와의 관계를 매개하는 존재이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야곱의 자아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대상인 셈이다. 유모 드보라는 머나먼 하란에서 타양살이를 하는 야곱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모성적인 환경을 제공한 셈이다.

드보라의 죽음 보도가 이곳에 나타나는 것을 주변 본문과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창세기에는 다섯 명의 여인들의 장사지냄에 대한 보도가 나타나는데 드보라를 제외하고 모두 족장들의 아내였다(사라–23:19 ; 49:31, 라헬:35:19, 리브가와 레아: 49:31). 드보라의 죽음은 족장의 아내 죽음 만큼이나 큰 비중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드보라의 죽음 보도는 35장 1–15절 단락의 중심에 배치됨으로써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드보라의 죽음 보도는 전반부(1–7)와 후반부(9–15)를 연결하면서 전환점을 이룬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은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남을 의미하는데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본문의 흐름이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과 장사지냄에서 극적인 전환을 이룬다. 유모로서의 드보라는 태어남과 돌봄을 담지하고 있고 그녀의 죽음은 옛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즉 그녀의 장사지냄은 죽음과 새로운 시작의 역설이 있다(하경택, 2018). 드보라가 야곱과 동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은 애곡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야곱이 벧엘로 올라가기 전에 정결과 이방 신상을 매장할 때 자신의 옛 사람도 함께 묻었다. 야곱이라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중심에 드보라의 죽음 보도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드보라

www.kci.go.kr

가 야곱의 실제적인 변화에 있어서 비계(scaffolding)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본다. 정결과 이방신 제거를 수행하는 야곱의 행동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응답하기까지 드보라는 믿음의 발판 역할을 야곱에게 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35장 맥락의 그 중심에 드보라의 죽음 보도를 배치시킨 것이라고 본다.

야곱의 인생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관계적 존재로 변모하는 계기가 된다. 벧엘에서의 하나님 임재 경험은 야곱의 내면세계에서 정서적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힘든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스스로를 위로하고 돌볼 수 있는 능력 발달의 기초를 이룬다. 이전에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 경험은 주로 내사(introjection)된 부정적 대상 경험이었다.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에 비해 열등감을 갖게 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느끼며 이름처럼 타인들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갖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힘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경험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특성이 서서히 변형되고 있었다.

Ⅲ. 닫는 글

기독교 상담은 내담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한 개인의 내재화된 대상표상이 투사된 성질을 지닌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들은 대개 자신이 고통의 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 소리를 외면하고 실의에 찬 자신을 홀로 내버려두는 거절하는 대상으로 경험하곤 한다. 또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등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는 리비도적인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 같다. 이러한 내담자들의 인식에 대하여 Fairbairn의 관점이 기독교 상담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www.kci.go.kr

수 있다.

야곱과 그의 가족에 대한 내러티브는 사랑하던 대상을 상실하여 실의에 차 있는 야곱과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순종이라는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야곱의 트라우마는 어찌 보면 자업자득의 결과이기도 하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실의에 빠뜨린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저질러놓고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도주의 삶이다. 대개 트라우마는 가해자가 있기 마련이지만 야곱의 사례는 이런 점에서 특이하다. 야곱 자신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고 기다렸다면 이런 불상사는 과연 발발했을까. 인간의 현실적인 욕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질 수 있음을 되새겨 보아야 할 일이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내담자가 하나님을 심리적 대상으로만 내재화하지 않고 실재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기독교상담은 하나님이 인간의 인식 영역을 넘어선 저 멀리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이기보다는 몸소 십자가에 달리신 역사적인 예수님으로 형상화되어 오신 분임을 믿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

Fairbairn에 따르면 치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리비도적 자아와 반리비도적 자아에게 양도된 영역을 최대한 회복하여 원래 자아의 분열을 줄임으로써 중심자아로 최대한 통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Fairbairn, 2003). 여기서 회복의 주요 기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영향 하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기독교상담자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파편화된 자아가 그리스도라는 이상적인 대상과 조우할 때 중심자아가 강화될 수 있음을 기독교상담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내담자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격과 속성들이 내재화되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상담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가꾸어 가기 위

www.kci.go.kr

해서 벧엘로 집중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상담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집, '벧엘' 인 것이다. 개인의 삶이 파도처럼 휘몰아치는 생애일지라도 마치 야곱이 벧엘에서의 신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였듯이, 기독교상담자는 내담자도 벧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벧엘의 언약 즉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해결을 뜻하는 것처럼 상담자는 하나님과 내담자의 관계를 주지시키며 묵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벧엘의 언약인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보증의 언약은 내담자의 흐트러진 삶에 가장 절실하며 위로가 되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다. 기독교상담은 벧엘의 언약을 상기시킴으로써 족장시대의 시공간을 넘어서서 실존과 맞닫는 지금-여기의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도록 체험의 장(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은 정서적 차원의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여기의 실제 역사에 실재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장면 전환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상담은 내담자의 인생을 엮어가는 중심줄기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는 전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비록 야곱의 상황과 개개인 인생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벧엘 중심적인 인생살이의 결단과 실천은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기독교상담은 벧엘의 하나님이 내담자의 삶의 여정에 큰 변화의 중심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야곱이 '이스라엘' 로 새로운 자기 변화가 끊임없이 되새겨지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한다. 내담자가 벧엘 중심의 인생 여정으로 회귀하여 역설적인 감사와 긍정적인 재해석으로 영적 성장의 지평을 열어갈 때 위축되었던 삶은 비로소 영향력을 펼치게 될 것이다(김미경, 2011).

www.kci.go.kr

인간의 발달은 하나님과 만족스러운 관계성을 바탕으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서 살 수 없으며 우리의 성장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허용하는 환경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과 의미 있는 관계성(meaningful relationship)을 맺음으로써 본질적으로 의미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김미경 (2011). 외상후 성장(PTG)모델로서 이삭, 요셉 이야기. **신앙과 학문 16**(4). 7−31.

하경택 (2018). 벧엘에서의 야곱과 드보라의 죽음. 한신대학교 한신신학연구소, **신학연구, 73,** 163−195.

Clair, S. M. (2014). **대상관계이론과 자기심리학 4판**(안석모 역, *Object Relations and Self Psychology, 4th Edition*).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 2004 출판).

Fairbairn, R. D. (2003).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이재훈 역,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44년 출판).

Gomez, L. (2015). **대상관계이론입문**(김창대 외 공역, *Introduction to object relations*). 서울: 학지사. (원전 1997 출판).

Greenberg, J. R., & Mitchell, S. A. (1999).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역,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원전 1983출판).

Guntrip, H. (2020). **짧게 쓴 정신분석의 역사**(정승아 역, *Psychoanalytic Theory, Therapy, and the Self*). 서울: 학지사 (원전 1971 출판).

Johnson, A. A. (2020). **한 권으로 읽는 정신분석: 프로이트에서 신경과학까지** (강철민 역, *Introduction to Key Concepts and Evolutions in Psychoanalysis: From Freud to Neuroscience*). 서울: 학지사. (원전 2019 출판).

Jordan, J. B. (2009). **창세기의 족장 이야기** (안정진 역, *Primeval saints*).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2001 출판)

Rizzuto, A. (2000). **살아있는 신의 탄생**(이재훈 외 공역, *The Birth of the Living God*).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79 출판).

Robbins, M. (1992). A Fairbairnian object relations perspective on self−psychology.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analysis, 52,* 247−261.

Scharff, J. S., & Scharff, D. E. (2008). **대상관계 심리치료**(오규훈, 이재훈 역, *The Primer of Object Relations Therap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

www.kci.go.kr

구소. (원전 1995 출판).

Siegel, A. M. (2002). **하인즈 Kohut과 자기심리학** (권명수 역, *Heinz Kohut and the psychology of the self*).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96 출판).

Summers, F. (2004).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이재훈 역, *Object relations and self psychology*).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94 출판).

www.kci.go.kr

【 Abstract 】

Christian Counseling Readings of Jacob Narrative: Focused on Fairbairn

Kim, Mi Kyung
Seoul Hanyoung University

We are now living in the age of Untact, where strong social distancing is prolonged due to Corona-19 and preparing for the change of the untact era by deciding to introduce non-face-to-face classes and telecommuting. These changes can also spread to Christian's religious life, and worship can also be offered in a non-face-to-face manner, which could potentially spread in the form of "distancing from God." Human beings are relational beings, especially the formation of a relationship with God is an important aspect of existence. To this end, this study will look at the descriptions of Genesis, which make Jacob's story focused on the "Bethel (House of God)" based on the Jacob story. By dividing Jacob's story into six scene structure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Jacob, the people around him, and God by applying Fairbairn's object relation theory. In particular, after the Jabbok River incident and the Dinah incident, it attempts to analyze how God intervened and made Jacob into Israel in the Reformation and Bethel event of Genesis Chapter 35 that Jacob had implemented in his family. Christian counseling should start with "Bethel," the central motive of Jacob's story, and guide the client to return to "Bethel". Upon returning to Bethel, the client' s fragmented self encounters the ideal object of Christ with reinforcement of the central ego, and the client's well−being based on the relationship with God would be given.

Key words: Bethel, relational being, distancing from God, Christian counseling, Fairbairn's object relation theory

www.kci.go.kr